

원불교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민 성 효

(원광대학교)

I. 여성과 종교

종교는 인간이 경험하는 문제 전반에 관하여 궁극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동시에 설명을 한다. 곧 종교는 인간의 경험과 사건에 관한 궁극적인 해석의 틀이고 설명체계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종교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종교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실재일 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여타의 현상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집단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종교적 믿음은 인간에게 어떤 다른 믿음보다 더 확고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교리나 제도, 역사적 변천과정, 사회에 대해 종교가 갖는 입장은 매우 중요하며, 종교의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하나의 종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삼국시대 이전의 샤머니즘이 기본적인 심성을 형성하였고, 그 위에 불교와 유교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늘날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종교 다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종교 다원화 현상은 종교인구의 5분의 1이 어떤 종교를 신앙하다가 한 번 이상 다른 종교로 바꾼 경험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1%가 개종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갤럽조사연구소, 1990).

가족이 서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경우나 가족의 일부만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종교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로 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종교의 다원화 현상은 가족들간의 갈등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홍기원, 1996).

특히 우리 나라 종교에서 열렬한 신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자녀의 최초 사회화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족 가운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신자들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교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여성관은 자녀의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성과 종교에 대한 관심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 종교의 여성관을 검토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이다. 대체로 이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역사적으로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는 인식 아래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둘째는 지금까지의 종교학이 남성의 종교의식만을 다루었다는 비판아래 종교학의 인간이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종교의식도 남성의 종교의식과 똑같은 비중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카모디, 1992).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까지의 종교들은 여성의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여성을 남성의 보조자로 보거나, 여성의 열등성을 강조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가부장적 사회체제를 강화하는 역기능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원불교는 어떠한지 원불교의 여성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자녀의 사회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다종교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 앞으로 개방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와 전망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원불교의 여성관

원불교는 남존여비(男尊女卑)가 강했던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1916년에 이 나라의 매우 가난한 농촌에서 소태산의 대각과 더불어 개교(開敎)되었다. 이 시

기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의 모든 면에서 일대 변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1920년대 초부터 여성들 스스로 조선여성을 계몽하고 단결시킬 여성조직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여성의 교육과 계몽을 목적인 여성단체가 많이 결성되고, 여성들은 신교육을 통해 근대적인 의식의 자각을 이루어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초보적인 의식 계몽운동을 통해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주력하였다. 한편 여성 노동자와 농민의 성장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1930년대 초 근우회의 해체 이후 여성운동은 거의 사라져 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작된 원불교는 양성평등을 교리의 주요내용으로 삼고, 이에 바탕하여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이 불평등한 현실을 ‘병든 사회’로 간파한 소태산 대종사는 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경전에 양성평등 사상을 밝혀 두었다. 그 종교의 소의경전은 신자들이 지켜나갈 삶의 지침이자 미래의 방향임을 고려할 때, 교조가 직접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경전에 양성평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의미 깊은 일이다.

일원상의 진리는 원래 차별이 없는 자리에 근원해 있고, 원불교의 교리는 모두 이 일원상 진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인 일원상은 음양상승으로 변화되고, 이 음양의 평등하고 역동적인 운동으로 만물이 생겨난다. 이 이치를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의 진리’라고 하며, 이 세상의 일체 만물은 모두 일원상 진리의 나타난 바이고,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일원상의 진리로부터 비롯되었다. 일원상의 진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등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원(一圓)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언어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서 ……(원불교 정화사, 1986: 23)

이 일원의 진리는 일체의 차별이 끊어진 자리로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의 일체 만물도 다 근원적으로 평

등하다. 소태산은 대각후의 심경을 “만유는 한 체성이요, 만법은 한 근원이라.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원불교 정화사, 1986: 95)라고 표현하였다.

세상의 모든 나타난 바 형상있는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이 되었다. 일원상 진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사은으로 보며, 사은은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생상의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만물이 서로 은적인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 만물이 만물에게 서로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세상에는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¹⁾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원불교 정화사, 1986: 328-239)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원불교 정화사, 1986: 114)고 하였다. 남자의 몸을 얻어야 성불할 수 있다는 일부 불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본래 남녀의 성품은 차별이 없고, 따라서 여자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원상 진리의 근원적 평등에 바탕하여 현실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도가나 정부나 민간에서 각각 차별 세우는 법을 주로 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지마는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처지에서나 그 쓰는 법이 편벽되면 일반 대중을 고루 화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재가 출가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 다 여래위로 받들 것이요(원불교 정화사, 1986: 407).

과거에는 차별을 하여 사람을 다스려 왔으나 앞으로의 세상에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평등해야 일반대중이 그 법을 수용하고, 편벽되고 차별적인 제도나 관습은 대중이 수용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버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여성도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재가교도도 출가교도와 마찬가지로 대우하며,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화기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혹 차별의 마음이 일어나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

1)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원불교 바깥을 말하며, 사람의 고하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뜻이다. 그 차별의 세상을 볼 때에 본래 차별이 없는 불성을 보아 차별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래에 차별 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생각하고(원불교 정화사, 1986: 916) 남을 대할 때는 모든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 각자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라(원불교 정화사, 1986: 788-789)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남녀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조도 평등해야 함을 강조하여 남녀평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평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남녀간의 불평등이 개인인 남자나 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보는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있다.

평등한 사회를 주장할 때 주의할 일은 공익심을 갖는 것이다.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상취득(無償取得)에만 정신이 어둔 것이 어찌 균등의 원리리요, 먼저 우주의 공도를 깨쳐서 자기사유에 국한없는 정신을 가지며 노력의 댓가없는 의식(衣食)을 구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진실한 균등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니라(원불교 정화사, 1986: 789).

참다운 평등은 남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함께 이뤄야 하며, 무조건 평등만 주장하여서는 되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다음에 참다운 평등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 한다면 결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며,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가운데 공익심은 살아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평등사회의 건설도 가능하게 된다.

일원상 진리의 근원적인 평등성에 바탕하여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참다운 평등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원불교의 기본 교리이다. 개인이나 사회에서도 만물이 그 근본은 하나임을 알고, 음양상승과 같이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이 진리에 바탕하여 모든 조직을 해나간다면, 남녀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평등을 이룰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평등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음 장에서 알아 보자.

Ⅲ. 양성평등의 실현 방안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는 여러 가지 병든 세상을 건전한 세상이 되도록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며, 진실로 적절한 약방문이다. 소태산은 자력양성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병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많이라 남녀간에 서로 자력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즉 의뢰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녀권리동일이라는 과목을 내어 남녀에게 교육도 같이 식히고 의무책임도 같이 지우며 지위와 권리도 같이 주어서 피차에게 의뢰심은 철폐시키고 자력을 장려하여 녀자는 남자 아니라도 살만하고 남자는 여자 아니라도 살만한 힘을 얻게 함이요(불법연구회, 1928-1940: 38)(밑줄 필자).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동등하게 이행하여 남자는 여자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대개 의무는 권리가 있으므로 생겨나는 것이며, 또 권리란 의무를 행하므로써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없는 권리가 있을 수 없고 권리없는 의무도 있을 수 없다.

과거의 조선 여성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도 못했다. 이는 곧 권리가 없으므로 책임질 능력을 갖출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남성만의 역사요, 과거의 사회제도는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전음광, 1930: 410). 과거 조선 여자들의 생활을 보면 소태산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 여성 삶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관찰과 연결되어 있다.

과도기의 여성들같이 무권리하고 부자유한 신세가 또 어디 있으랴. 사람인 이상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재산권도 여자에 한하여는 없었고, 동물인 이상 반드시 움직여야 할 사교권도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었다. 지극히 존중한 부모에게도 자녀의 도를 다하지 못하였고 더할 수 없이 친절한 자녀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받았나니, 과도기의 여성들같이 무권리하고 부자유한 신세가 또 어디 있으랴(전음광, 1930: 410).

아무런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어서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남자에게 의뢰하게

될 때 그 가정, 사회, 국가의 손실이 큼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동권을 철저히 실행하여 모든 여권을 인정하여 주는 동시에 또한 제반 업무를 똑같이 분담하여 서로 피차 의뢰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성은 과거에 많은 차별을 받아왔고,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여성이 받아온 차별의 내용과 여성이 가져야 할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등한 교육이다. 소태산은 과거의 교육제도가 여자는 가르치지 않고 남자만 가르쳤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자기 자녀를 딸이나 아들이나 평등하게 교육시킬 것을 강조했다. 여성이 다른 권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다른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등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내자녀 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자는 사회교육, 공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성에게 맡겨졌던 자녀교육의 책임을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화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취업이다.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자연히 의뢰생활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가르친다. 여성이 직업을 가져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자연히 재산이 생기게 되고 그 재산을 여성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게 되면 의뢰생활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남편에게만 의지하여 사는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려면 여성의 일로 당연시되었던 가사노동과 아이양육이 사회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동시에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도 갖춰져야 한다. 이에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가사노동이 사회화되고 모든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세상을 전망한다.

지금도 정성같은 데에는 직업상담소라는 곳이 있어 혹 남의 고용역 같은 것은 소개하여 주난 대가 있거니와, 이 다음으로는 상당한 직업 소개소가 생겨나서 구 직업자에게 편리를 주게 될 것이요. 또 흉악한 벽지에까지라도 현재 도시와 같이 각종각색의 상점이 생겨나서 돈만 준비한다면 그 동리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것이요. 간이 식당 같은 곳도 생겨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 각자의 마음대로 청구하면 그대로 공급하여 매식자에게 편의를 주게 될 것이며, 또는 처처에 재봉소나 세탁소가 있어서 복잡한 생활을 하난 사람들도 의복을 해 입거나 세탁을 하여 입난 대에 곤란이 없게 될 것이다. 또는 탁아소나 양로당 같은 기관도 처처에 생겨나서 유아(幼兒)있난 직업부인들은 매일 작업소에 갈 적에 각자의 유아를 맥겨두면 그 곳에서는 전문으로 어린 아해들을 먹이고 보아주난 고로 아해를 가진 부녀들도 안심하고 버리(벌이)를 할 수가 있을 것이요. 또 무의무탁한 노인들은 자선사업가들이 양로당을 짓고 시봉군을 두어 의식을 받드는 머리에 별 걱정없이 수양이나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불법 연구회, 1928-1940: 473-480).

직업소개소, 간이식당, 세탁소, 탁아소, 양로당 등은 모두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므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은 위와 같은 기관이 많이 생겼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의심했을 정도로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었다.

셋째, 재산권이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면 경제적 힘이 있으므로 자기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께도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과거 여성은 사람인 이상 반드시 가져야 할 재산의 권리가 없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때 차자와 딸에게 차이를 두었고, 여성 자신이 직업을 갖지 않으므로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부모의 균분상속과 아울러 여성도 직업을 가져 경제생활을 독립적으로 하여 자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평등한 부부관계다. 원불교에서는 결혼 후에도 사랑을 주로 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주로 하라고 했다. 사랑을 주로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책임과 의무를 주로 하라고 했다. 결혼 안에서 여성들은 사랑이 중요하며 사랑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여성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사랑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결혼자체가 이미 생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박혜경, 1993: 125-126).

대부분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사랑이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남편의 독특한 사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이들은 그 사랑을 통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소태산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결혼 후에도 경제적 자립생활을 하도록 미리 밝히

고 있으므로, 남자의 독특한 사랑에 의지하지 않아도 여성의 생존이 위태롭지 않을 뿐 아니라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의뢰생활을 하지 않고 자력을 기르도록 하라는 것이다.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부부가 각자의 집에 살면서 때때로 서로를 초청하면서 살 것을 제안하고, 부부가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문패를 똑같이 달도록 권유하고 있다. 부부가 각자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가사노동이 많은 부분 사회화되어 있고, 남은 부분은 각자가 담당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직업만을 가진 여성이 슈퍼우먼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부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과는 달리 모계와 부계 두 계통을 다 이어갈 수도 있다고 보았다.

부계와 같이 모계도 이어가기 위하여 아들이 형제라면 하나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만하리라. 김수로왕은 허씨 부인의 성을 따라 아들을 봉하였다 한다(송규, 1987: 107).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이 부계를 잇는 것인데, 모계도 이어가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불교의 남녀평등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력을 길러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할 때에는 남자도 여자의 지도를 받고, 그 반대일 경우는 여자도 남자의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 지도하고 지도받게 하여, 남자와 여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가도록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의 의식을 개조해야 되는데, 소태산이 직접 제자들을 이와 같이 가르침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었다.

IV. 양성평등사상의 사회적 기능

원불교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교단내의 각종 문헌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원불교의 여성관이 실제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겠다.

다.

초기 교단에 귀의한 여성들은 매우 의식있는 사람들로, 가부장제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불교에 귀의한 후 매우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향상과 주변 사람들의 계몽에 노력했다. 그들의 활동은 수많은 여성들이 출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태산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육사업으로 당시 교육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교육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였다.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곤란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업부, 식사부, 세탁부 등을 만들었고, 제사공장에 다녀서 자신의 학비를 마련하게 했다.

당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 많은 장학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용하였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이다. 은부모시자녀법을 만들어 자녀가 없는 노인들이 학비가 없는 젊은이의 교육을 담당하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봉양하게 하여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하였고, 이 제도로 공부를 한 여성들이 많았다.

평등한 교육과 훈련으로 많은 여성 교무를 배출하게 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교당에서 야학을 실시하여 문맹퇴치운동, 생활 계몽운동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남자와 동등한 과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여성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오늘날 원광대학교와 영산대학 등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여자교무제도는 '의견제출'이라는 열린제도에 의해 여성들 스스로의 발의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종교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일로 원불교의 양성평등을 보다 확고히 해주었고, 각 종교 여성 교역자 제도의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여자교무제도와 여성의 평등한 교단조직 참여는 오늘날 여자교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여자교무들은 교단의 각 기관에서 다양하고 폭 넓은 역할을 하여 왔으며,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수위단회나 중요 조직에 남자와 평등하게 참여하여 왔다. 여자교무를 많이 배출한 것은 여성 교도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여성 교도들은 가부장제적인 가족의 틀을 벗어나 사회적 공익을 위한 일을 해 오고 있다.

또한 번잡한 예법을 개혁하여 신정예법을 만들었고 간편한 의례절차로 여성에게 매우 억압적이었던 의례를 남녀에게 평등한 의례로 바꾸었다. 예법개혁은 가사노동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정의 사적인 일을 공적인 공동체의 일로 승화시킴으로써 집안에서 여성들에게 고립된 노동을 공적인 노동으로 만들었다. 특히 혼례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합리적이고 여성해방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신정예법은 과거의 예법이 여성들을 매우 구속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각종 의례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자리매김한 매우 혁신적인 내용이다.

교단의 초창기에 비해 오늘날은 사회교육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문맹퇴치운동이나 계몽운동이 오늘날은 문화 센터나 교당을 통해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취미를 살리거나 기능을 익히는 등 다양한 그룹활동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 내용을 보면 다도(茶道), 부모역할훈련, 꽃꽂이, 서예, 동양화, 합창, 악기연주 등이 있다. 또한 여성운동, 봉사활동, 환경운동 등 대(對)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녀평등을 실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바뀌지 않는 의식구조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사고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성고정관념은 원불교를 신앙하면서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그밖에 성문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 교무들의 결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성평등의 여성관을 실천해 온 원불교의 사회교육적 기능이 자녀의 사회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있을까?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역할은 학습되는 것이다. 사회는 남성에게는 '남자다움'을 여성에게는 '여자다움'을 기대해 왔으며, 남성적인 특성은 독립적, 능동적, 모험적 등으로, 여성적인 특성은 의존적, 수동적, 온정적 등으로 고정시켜 사회적인 성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았다.

전통적인 이론들이 남녀가 심리적으로 다르며,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을 습득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라고 보는 전제아래 성립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양성적 시각에서의 성역할 발달이론들은 남녀가 심리적으로 유사하며 고정관념적인 성역할은 남녀 모두의 자연스러운 개성과 잠재력의 개발에 제한을 준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정진경, 1987).

종교적 가치관에 의해 각인된 내용은 신자들이 자녀양육시 적용하게 되고, 그 종교의 가르침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자녀의 사회화에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어느 종교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인 존재로 가르친다면, 아이들도 여성을 이차적인 성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불교의 양성평등적 가르침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한다. 필자가 인터뷰를 해 본 대부분의 여자 교도들은 자녀들을 매우 평등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교도가 아닌 경우 남편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양성평등의 입장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태산 대종사는 『많은 남녀 학인(學人)들을 지내 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堅實性)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융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內心)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수행품 31장)라고 하여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지적하고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남성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활동을 가정에서 직업세계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으로 성에 따라 활동범위를 제한시키던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김재인, 1993). 물론 이와 함께 사회구조의 변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인 우리 나라에서는 양성평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종교회통의 정신을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원불교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진리에 근원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모든 곳이 다 하나의 일터임을 강조하는 삼동윤리를 바탕으로 종교연합운동을 벌이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도 ‘예수님의 심통 제자가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고,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의 하는 일을 알리로다’라고 하였고, ‘모든 종교인들은 한 형제이지만 각각 문화와 전통이 다른 나라에서 자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한 형제임을 알

게 되면 화합하게 될 것이니, 종교도 이와 같아서 인지가 개명되고 도덕이 빛이 고루 비치는 날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융통하고 화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원불교인들은 이러한 사상을 잘 수용하기 때문인지 타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교화를 하는데도 타종교인들 보다 소극적인 편이다.

V. 미래 사회의 과제와 전망

어느 종교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실존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완전함을 얻는 것이다. 이 완전함은 모든 인간의 평등과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신앙을 한다.

그런데 종교가 왜곡된 여성관을 갖고 있다면, 이는 평등과 해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다. 다행히 원불교는 교리가 양성평등적이므로 왜곡된 여성관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

미래 한국 사회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들은 타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 전에 먼저 남자는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넘나들 수 있는 자세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가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한 한 형제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우선 한 가족이 다양한 종교를 신앙할 경우,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종교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조화와 회통이 가족 밖의 사회에서도 확산될 때 우리 나라가 다종교 사회이지만 커다란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종교의 교리를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교나 강연에서도 종교간 회통과 조화를 강조하며, 현실적으로도 다른 종교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지구 속에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 듯 다양한 종교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박혜경(1993).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불법연구회(1928-1940). 제6권.
- 송규(1987). 한울안 한 이치에. 박정훈(編). 증보판. 이리: 원불교 출판사.
- 원불교 정화사(1986). 원불교 교전. 제4판. 이리: 원불교 출판사.
- 전음광(1930). 교강의 내역. 혜산문집 간행위원회(編). 빛은 동방에서. 이리: 원불교 출판사.